

‘진안고원 밥상’ 소개해요

KBS ‘한국인의 밥상’ 오늘 오후 7시 방영

KBS 1TV 한국인의 밥상에서 ‘진안고원 밥상’을 소개한다. 3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전파를 타는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형성된 남한 유일의 고원지대에서 청정 자연을 고스란히 품고 사는 진안 사람들의 삶과 음식을 전한다.

▲ **침침산중 오지, 산악초 캐는 가막마을**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버스가 한없이 올라간다. 예전에 도로가 제대로 깔리지 않았을 때 진안은 외지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가막마을로 들어가는 버스는 지금도 하루 세 번이 고작이다.

진안에서 가장 깊숙한 산골 마을 중 하나라는 상가막마을, 해발 400m 산중턱에 위치한 곳이다. 진안고원에서 모든 것들이 더디게 안고 있지만 천천히 자라는 만큼 속은 단단하고 영글다.

기후조건이 좋지 않은 것이 역설적으로 좋은 품질을 만드는 셈이다. 해마다 농사철이 돌아오기 전, 흑염소, 인삼이며 마을에서 키워 낸 그 단단한 것들로 봄보살을 한다.

염소 고기는 삶아서 수육으로 먹고 배는 고아 육수내서 염소탕으로 먹는다. 인삼에 오미자, 꾸지뽕

나무, 우슬까지 마을에서 캐온 귀한 먹거리들이 총출동한다.

▲ **원연장 마을, 산나물 캐는 날**
 벗꽃이 가장 늦게 피는 곳, 진안. 화려한 봄꽃도, 나무의 싹도 찾아볼 수 없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건 들판에서 얼굴을 내미는 나물들 덕분이다.

이때 때 올라오는 대표적인 나물은 밭초, 풍성하게 자란다 해서 풍년초라 부르기도 한다. 흔히 벌굴자리라 부르는데 버섯나물도 있다.

진안에서는 볶은 나물에 들깨가루 물을 붓고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여 먹었는데 ‘겉국탕’이라 불렀다. 나물로 반찬만 해 먹은 건 아니다. 나물은 까니를 때우는 중요한 식재료이기도 했다. 나물에 밀가루를 버무리 버무리를 썰고 말린 나물로 나물밥을 짓는다.

▲ **용담호의 민물고기 밥상**

2001년 진안에 용담댐이 건설되며 용담호가 만들어졌고, 전북도민의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다. 이경철씨는 용담호 열 송풍마을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어부다.

급강 상류이기도 한 송풍마을엔 용담호가 생기 전 작은 냇가가 흘렀다. 겨울이 가고 날이 풀리면 마을 사람들은 냇가에 나가 고기

잡으며 봄을 맞았다.

강에 나가 천렵을 하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다슬기로 육수 내서 어죽을 한 솥 끓여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는다. 뱀이 막히고 먹이가 많이 생키며 용담호에 고기도 많이 늘었다.

‘민물고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쏘가리에 동자개, 붕어, 메기, 누치 등 다양한 종류의 고기가 잡힌다. 아내 이경씨가 마중을 나와 쏘가리를 회를 떠서 먹는다. 육질이 단단해서 회감으로 그만이다. 물고기가 많이 잡혀 구워먹고, 쏘가리로 조림하고, 동자개 매운탕을 끓인다.

▲ **더덕 향기로 가득한 미조마을**

겨울이 물러갈 때쯤, 진안 마조마을을 가득 채우는 건 진한 더덕향기다. 썩어 올라와 양분을 뺏기 전, 지금이 가장 먹기 좋은 때다. 더덕 역시, 고원의 환경 탓에 다른 곳보다 자라는 속도가 늦지만, 속이 영글다.

예전부터 마조마을에는 사방에서 더덕이 자랐다. 여기저기 썩어 떨어지면, 도랑가진, 뒷마당이건 더덕 향이 진동을 했다. 더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더덕구이. 고추장 발라 살짝 구워낸 더덕구이는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별미다. 집에서 키우는 토종닭에 더덕, 엄나무, 가시오가피 나무 넣어서 백숙을 만들면 최고의 보양식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노후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단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장수군이 노후 된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군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보수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노후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노후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단지당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은 2012년부터 총 1억6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개단지를 대상으로 총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세대 미

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외부환경 개선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부분에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했다”며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기자



장수군은 30일 노인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장수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장수군은 30일 오전 11시 최용득 군수를 비롯해 최봉선 노인회장, 권승근 학장, 입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2층 회의실에서 노인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사)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회장 최봉선) 주관으로 운영되는 노인대학은 150여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교양강좌, 건강강좌, 안과검진,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날 참석한 노인대학생들은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각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감과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입학식의 기쁨을 내뿜었다.

최용득 군수는 “장수군 노인대학이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평생교육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반딧불 농업대학 개강

무주군은 30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에서 2016년 반딧불 농업대학 입학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황정수 군수(학장)를 비롯한 농업대학 수강생(124명)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개강식과 화과별 오리엔테이션에 함께 했다.

황 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반딧불 농업대학은 농민도 부지되는 무주농업을 실현해 갈 훌륭한 인재 육성의 산실”이라며 “일하며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주농업의 개척자이자 선도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농업경영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반딧불농업대학은 올 11월 28일까지 버섯과와 사과(기초)과, 친환경농업과



2016 무주 반딧불 농업대학 입학식에서 황정수 군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

와 농·식품가공과 등 4개 화과로 운영되며, 농촌진흥청 등 농업지도기관의 전문 강사들이 출강해 사과(기초)과는 매주 화요일, 버섯과는 매주 수요일, 친환경농업과는 매주 목요일, 농·식품가공과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반딧불농업대학은 지난 2009년 개교 이래 총 87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농민도 부지되는 무주 실현의 기반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41개 사업 선정

주민 공동체 등 5개 분야로 온라인 투표 서비스도 실시

완주군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2016 아파트 르네상스 1차 41개 사업을 선정했다.

군에 따르면 공동체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싹트는 아파트 르네상스 1차 사업 공모결과, 41개 사업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 공동체 연합 공동체, 공동체 시설, 공용시설물 관리, 온라인 투표 서비스 사업 등 5개 분야로 진행됐다. 세부 사업별로는 문화·교양 프로그램(수공예, 독서모임 등)과 지역사회 돌봄 사업(다문화가족과 친해지기, 유소년 축구단) 등 주민 공동체 분야 19건, 사방방 북카페, 작은 도서관 조성 등 공동체 시설 분야 10건, 옥상 방수, 담장 보수 등 공용시설물 관리 분야 12건 등 총 41개 사업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하는 온라인 투표 서비스 사업 1건은 이노윌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 선정



완주군이 2016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선정했다.

했으며 중앙선관위 K-voting 서비스와 연계하여 휴대폰이나 PC 등으로 아파트 동대표자 선거 등을 지원한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한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은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단체(10명 이상), 관리지역간 협의를 거쳐 선정 가능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올해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2년차로 더 많은 주민 참여와 소통으로 성숙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르네상스 완주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선관위, 안성서 깨끗한 선거 캠페인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군은 4월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무주안성 장날인 30일, 안성면 덕유신정에서 아름다운 선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성장날을 시작으로 선거기간 중 관내 장날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

과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한편 무주군선관위 전승기 사무과장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신뢰와 참여, 희망과 화합이 어우러진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까지 신고 당부

완주군은 2015년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말에 각 사업장(지점) 소재 시·군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인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법인은 신고·납부시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정관리과로 접수하면 되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군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기내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26)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특별블로그

장수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장수군은 31일부터 ‘장부.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출산 관련 수혜적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정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전기요금 감면 등 3종이다.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출생지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기관으로부터 신청결과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군은 임신부 등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장수군 등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사전안내북 56종을 확충하고 소책자를 제작해 분장 및 직속기관 읍·면 보건진료소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경찰, 현장 인권진단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에서는 30일 무주군지체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 경찰발전위원회, 각 부서 진단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실, 수사부서 등 시민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를 상대로 현장 인권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진단은 경찰관서 방문시 불합리한 시설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외부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정문에서 도로로 각 출입민원 이동경로, 청사내 주차장, 점자블럭, 음성안내 장치 등 치안요원의 눈높이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키 위해 마련되었다.

한도연 서장은 경찰의 눈 높이보다는 사회적 약자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찰서 방문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경찰서 적상파출소 아동학대 근절 주민 홍보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적상파출소장인 소장은 적상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마을 이장을 상대로 아동학대 및 4대 사회악, 노인 교통사고 예방 등 현안 업무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정 소장은 4대악 척결 및 아동 학대, 노인 교통사고 예방 등 경찰 업무에는 경찰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마을 이장 및 사회 지도층이 함께하는 협력치안을 당부했다.

이외에, 적상면 이장협의회 이우석 회장은 “4대악 척결 및 교통사고 예방은 민·경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면서 올해는 우리 관내에 사망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시설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마을 이장도 경찰 업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운영대의원 회의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안구)는 3월 30일 공사 관리구역인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의 농업인 대표인 운영대의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사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상반기 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 설명 및 물관리 추진계획과 농지는 행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대책과 안전영농을 위한 양배수장 가동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있게 토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안구 지사장은 “앞으로 시설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농업인의 모내기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